

# 고사 직전 여행업계도 인근 상권도 '모처럼 기대감'

## 무안공항 상반기 재개항 가능성

식당·카페 1년 넘게 힘겨운 나날  
광주 민·군공항 통합이전 앞두고  
"공항 활성화 위해 조속 재개항 절실"

무안공항은 호남권 유일의 국제공항이다. 지방 공항으로는 유일하게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서남권 해양 관광의 관문 공항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는 공항 개발종합계획에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육성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광주 민간공항 이전이 지연되면서 지난 2007년 11월 개항 이후 15년이 넘도록 서남권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지 못했고 코로나 19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이어지면서 공항 활성화는 커녕, 지역 관광 생태계 붕괴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남도와 지역 여행·관광 업계 등은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안공항을 하루 빨리 다시 여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기대감이 적지 않다.

◇공항 폐쇄, 관광·여행업계 붕괴=무안공항이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폐쇄된 뒤 지역 여행·관광업계는 사실상 붕괴됐다.

무안공항을 통해 여행상품을 운영해오던 지역 여행업계는 공항 폐쇄로 생존 기로에 놓였다.

참사 이후 매출이 80~90% 이상 급감했고 여행 업계 종사자들은 택배기사, 요양보호사, 세차장 아르바이트, 가이드 등을 병행하는 '투잡', '쓰리잡'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다. 광주전남관광협회가 추산한 피해액은 약 282억원에 달했다.

전세기를 임대해 여행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공항 폐쇄 이후 여행객 모집 자체가 불가능해져 청

주·대구·부산 등으로 우회 상품을 만들고 있지만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이유로 여행객 모집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공항 인근 상권도 벼랑끝에 내몰리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공항을 찾는 여행객들이 늘수록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누렸던 무안군 망운면 식당·카페들은 매출 급감으로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 공항에서 4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운영중인 카페 '무안 879'는 주말마다 30~40분 대기줄이 늘어서기도 했지만 공항 폐쇄 이후 손님 발길이 크게 줄었다. 한 때 직원 7명을 두고도 손이 모자랐지만 직원도 3명으로 줄여야 했다. 외국인 패키지 여행객 의존도가 높았던 무안공항 반경 5분 이내 숙소들의 경우 매출 타격에 휘청이고 있다.

하늘길이 끊기면서 여행객들을 실어나르던 전세버스 업체도 매출 급감 사태를 겪고 있다.

나승채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공항 폐쇄 이후 비수기 매출이 30~40% 이상 급감해 버티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반쪽' 공항 오명 벗어나=전남도는 특히 광주 민간·군 공항의 통합 이전을 발표한다. 오는 2027년 광주송정-나주-무안국제공항-목포를 잇는 고속열차가 개통되는 점을 들어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재개항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9월 예정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경우 세계 최초로 열리는 섬 박람회인데, 9만 명에 이르는 해외 여행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안공항 재개항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 여건으로 꼽힌다.

전남도는 이미 유럽과 미국을 오가는 500좌석 이상의 대형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3160m) 공사도 마무리된 상태다.

참사 이후 무너진 담장 보수와 조류잡지제이다, 열화상카메라·음파발생기 등 첨단 장비도 확충했고 북측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등도 완료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는 공항 재개항과 함께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맞물려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까지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되며 연간 이용객 급증으로 서남권 관문 공항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공항 개항(2007년 11월) 이후에도 2022년까지 광주공항 국내선을 이용한 승객은 2631만 7000명에 달했다. 15년 간 335만 1000명의 국제선 이용객 만으로 버티는 무안공항으로서의 국내선 통합이 이뤄지면 공항 활성화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미흡했던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공항 활성화를 위한 고속열, 민간공항 이전 등 인프라를 확충해 명실상부한 서남권 대표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여행비 부담 덜고 혜택 지역 소상공인에게" 이 대통령, 강진군 반값여행 모범사례 언급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주제  
혁신 관광정책 전국 확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강진군이 전국 최초로 시도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값 관광'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모범 답안으로 제시하며,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 산업 성장의 온기가 전국의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스며들어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만 쏠리는 지금의 구조에 안주한다면 우리 관광 산업의 미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강진군의 '반값 여행'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정책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강진처럼 여행객의 주머니 부담은 대폭 낮추고, 그 혜택을 고스란히 지역 상인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지혜를 모아 관광 산업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지켜세운 '강진 반값 여행'은 외지 관광객이 강진에서 소비한 여행 경비의 절반(50%)을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파격적인 상생 모델이다.

개인은 최대 10만원, 2인 이상 가족이나 단체 팀은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유치' 단계를 넘어, 소비가 지역 상권에 다시 머물도록 설계했다는 점이다.

환급된 금액은 강진 내 오프라인 가맹점과 지역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관광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를 갖췄다.

고급리와 고불가, 내수 침체로 지방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던 시기에 강진군이 내놓은 이 과감한 해법은 지역 경제 회복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부터 '시즌2'를 가동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다.

단순히 경비를 보전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이라는 필수 조건을 달아, 관광객들이 지역 구석구석을 둘러보게 함으로써 특정 명소에만 치중했던 소비를 지역 상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유도탄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893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2000만 명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30년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양적 팽창을 넘어 수요자 중심의 질적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공항과 코루즈 인프라 확충, 출입국 제도 개선 등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관점에서 지역 관광의 매력을 키워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FS연습 야외기동훈련 이전...한 "연중 분산"·미 "계획대로"

조율 끝나지 않은 채 계획 발표  
서해공중훈련 놓고도 불협화음

한미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훈련(CPX)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계획을 25일 발표했지만, FS 연습과 연계된 야외기동훈련(FTX)을 놓고 여전히 입장 차를 보였다.

한미가 연습의 중요 요소인 야외기동훈련 규모에 합의하지 못한 채 FS 연습 계획을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내달 9일 연습 시작 전까지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리 군은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하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훈련을 조정해야 한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정부 일각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9개월 전부터 협의하고 준비해온 FS 연습인 만큼 연습 기간 이뤄지는 워리어실드 기동훈련(WS FTX)을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훈련 참가 전력이 이미 한반도로 전개했고, 예산도 투입된 상황에서 훈련을 연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외기동훈련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은 이날 회견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됐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FS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이 축소되느냐는 질문에 "연중분산은

상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능력 제고를 위해 연중 균형되게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합참 측은 FS 연습이 시작되는 다음 달 9일 전까지는 협의가 완료되는 걸 기대한다며 연습은 정상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한미군은 야외기동훈련이 계획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라이언 도널드 한미연합사 겸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은 "3월에 FS와 워리어실드 기동훈련이 분명히 방어적 성격의 연습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합사 관계자도 "계획에 따라 공동으로 합의한 연습과 훈련을 진행하는 데 있어 변경된 것은 없다"며 "최중 협조하고 통합할 것은 자원, 예산 관련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b>갈라강판 지붕공사</b>	<b>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b>
<b>옥상스틸방수</b>	<b>전원주택신축</b>
<b>건물 리모델링</b>	<b>공장신축</b>
<b>징크판넬시공</b>	<b>창호(삿시)교체</b>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